

# ‘돈꽃’ 압도적 몰입 · 충격 엔딩, 자체최고 시청률

드라마 ‘돈꽃’이 과속지세 상승세로 자체최고 시청률을 또 한 번 경신했다.

10일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9일 밤 방송된 MBC 토요 드라마 ‘돈꽃’(극본 이명희·연출 김희원)은 수도권 기준 9회 10.7%, 10회 16.8%를 기록, 자체 최고 시청률을 다시 한 번 경신했다.

이는 지난 주 방송된 8회 시청률 15.8%에 비해 1.0%p 상승한 수치다. 이날 방송된 ‘돈꽃’ 9, 10회에서는 나모현(박세영)이 장부천(장승조)과 윤서원(한소희)의 관계를 알아냈다.

윤서원은 자신의 정체를 모르는 나모현의 초대애인 하정을 데리

과속지세 상승세로 경신...16.6%

지난주 방송비 1.0% 상승 수치

고 무심원으로 향했다.

그러나 윤서원과 만나던 중에 나모현은 갑자기 쓰러졌고 장부천, 윤서원, 정말란(이미숙)은 나모현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윤서원의 정체를 알아챈 정말란은 살해 협박을 했다.

강필주(정혁) 또한 윤서원의 집을 찾아가 빨리 떠나라고 경고했다.

윤서원은 결국 나모현을 찾아갔고, 자신의 정체를 털어냈다. 이들은 나모현은 충격으로 쓰러졌고,

결국 유산하고 말았다.

또한 방송 말미에는 나모현이 첫사랑 조인호를 만났던 가평 집으로 향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그 자리에서 나모현은 강필주를 발견했고, 향후 전개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 일으켰다.

‘돈꽃’은 돈을 지배하고 있다는 착각에 살지만 실은 돈에 먹혀버린 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로 매주 토요일 밤 8시 45분에 2회 연속 방송된다.



## ‘이방인’ 서민정 부부의 뉴욕살이, 시청자 마음 울렸다



서민정, 안상훈 부부의 뉴욕살이가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렸다.

지난 9일 방송된 JTBC 예능 ‘이방인’에선 서민정, 안상훈 부부가 타향살이 속 겪었던 어려움과 외로움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으며 눈물과 진한 감동을 동시에 선사했다.

오랜만에 들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예전에 살던 곳으로 나들이를 가던 서민정과 안상훈은 미국에서의 세월을 회상하며 추억에 젖었다. 결혼 후 예전이를 낳고 새 친구들을 사귀는 등 많은 변화를 겪은 일들을 돌이켜보던 서민정은 울컥하며 말을 잊지 못해 마음을 짠하게 만들었다.

서민정은 한국에선 정말 씩씩한 사람이었는데 여기 오니까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힘들다고 뉴욕 생활 초창기에는 이진과 정민제의 삶을 살았음을 털어놓으

며 씩씩한 미소를 보여 안타까움을 자아낸 것

이어 딸을 낳고 미국 생활의 많은 것이 변한 에피소드를 하나씩 꺼내던 두 사람은 예전이의 이야기를 할 뻔인데도 시종일관 따뜻한 표정으로 보는 이들의 마음에 따뜻한 울림을 불어넣었다.

특히 ‘TV에 나오는 사람 중에 가장 좋아하는 사람’을 써라’라는 학교 과제에 배우인 엄마를 가장 좋아한다고 답한 예전이의 일화에 서민정은 고맙고 정했다는 속마음을 고백했다.

서민정은 남편에게 ‘내가 정서적으로 좀 안정이 되었으면 예전이를 더 어른스러운 마음으로 좋은 엄마로서 키웠을 텐데’라며 솔직한 심정을 밝혔다. 이에 뉴욕에서의 삶이 그리워지지는 않았고, 씩씩하고 힘들었던 것을 느낄 수 있어 코골을

정하게 만들었다.

이야기를 들던 안상훈은 눈물을 흘렸고, 그의 눈물에는 옆에서 힘들어하는 아내를 지켜왔던 기억과 미묘한 감정들이 모두 담겨있어 먹먹함을 안겼다. 더불어 속이 깊은 예전이가 기록하기도 하고 아내가 연애 활동을 못 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 등 진심을 엿볼 수 있었다.

이처럼 서민정, 안상훈 부부는 그동안 쉽게 꺼내지 못해 꼭 눌러왔던 속마음을 조심스럽게 꺼내며 서로를 더욱 이해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힘들었던 순간을 이겨내고 행복하게 웃는 두 사람의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하며 주말 저녁을 감동으로 물들였다. 이에 2회 시청률은 4.1%(닐슨코리아 수도권 유료가구 기준)를 기록, 2주 연속 4%를 돌파하며 인기 풀풍을 예고하고 있다.

‘이방인’은 방송 2주 만에 온라인 동영상 조회수가 100만 뷰를 돌파하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 워너원, 보이그룹 브랜드평판 1위



보이그룹 브랜드평판 2017년 12월 빅데이터 분석결과, 1위 워너원 2위 방탄소년단 3위 엑소로 나타났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지난 11월 8일부터 12월 9일까지 축적한 보이그룹 브랜드 빅데이터 90,310,255개를 소비자 행동분석을 통해 보이그룹 브랜드에 대한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를 측정했다. 지난 11월 브랜드 빅데이터 79,213,653개와 비교하면 14.01% 증가했다.

브랜드 지수는 소비자들의 온라인 습관이 브랜드 소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찾아내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만들어진 지표다. 보이그룹 브랜드 평판지수는 보이그룹에 대한 긍정적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들의 관심과 소통량을 측정할 수 있다.

2017년 12월 보이그룹 브랜드평판 30위 순위는 워너원, 방탄소년단, 엑소, 갓세븐, 세븐틴, 슈퍼주니어, 인피니트, 비투비, 아스트로, 몬스타엑스, 뉴진스, W, JBJ, 빅뱅, 블라비, 사이니, 스트레이 키즈, 빅스, 펜타곤, 빅톤, 2PM, NCT, 하이라이트 비스트, 동방신기, BAP, 신화, D.I.P, B1A4, VAV, 워너로 분석됐다.

1위, 워너원 ( 강다니엘, 박지훈, 이대휘, 김재환, 오성우, 박우진, 라이관린, 윤지성, 황민현, 배진영, 하성운 ) 브랜드는 참여지수 3,553,616 미디어지수 4,594,432 소통지수 3,778,654 커뮤니티지수 3,692,582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15,619,284로 조사됐다. 지난 11월 브랜드평판지수 10,852,627와 비교하면 43.92% 상승했다.

2위, 방탄소년단 ( 랩몬스터, 슈가, 진, 제이홉, 지민, 뷁, 정국 ) 브랜드는 참여지수 5,827,976 미디어지수 3,438,848 소통지수 2,676,261 커뮤니티지수 2,178,836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14,121,922로 드러났다. 지난 11월 브랜드평판지수 8,688,333와 비교하면 62.54% 상승했다.

3위, 엑소 ( 수호, 찬열, 케이, 디오, 백현, 세훈, 시우민, 레이, 첸, 타오, 루한, 크리스 ) 브랜드는 참여지수 1,033,032 미디어지수 2,597,120 소통지수 2,659,415 커뮤니티지수 1,765,443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8,055,010로 나타났다. 지난 11월 브랜드평판지수 5,424,555와 비교하면 48.49% 상승했다.

4위, 갓세븐 ( JB, 마크, 잭슨, 진영, 영재, 뱀뱀, 유겸 ) 브랜드는 참여지수 148,544 미디어지수 399,616 소통지수 4,495,688 커뮤니티지수 1,238,591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6,337,439로 나타났다. 지난 11월 브랜드평판지수 1,605,683와 비교하면 294.69% 상승했다.

5위, 세븐틴 ( 에스쿰스, 정한, 조슈아, 준, 호시, 원우, 우지, 디에잇, 민규, 도겸, 승관, 버논, 디노 ) 브랜드는 참여지수 671,440 미디어지수 1,922,560 소통지수 1,044,376 커뮤니티지수 920,075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4,558,451로 분석됐다. 지난 11월 브랜드평판지수 3,583,663와 비교하면 27.20% 상승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보이그룹 2017년 12월 브랜드평판 분석결과, 지난 11월과 비교하면 브랜드소비 2.12% 상승하고, 브랜드소통 25.41% 상승하고, 브랜드확산 5.39% 상승했다. 워너원과 방탄소년단이 보이그룹에 대한 소비자 브랜드 소비를 끌어올리고 있었다. 워너원은 국내 미디어에서 브랜드평판이 높게 나오고 있었고, 방탄소년단은 해외미디어에서 브랜드평판이 높게 분석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보이그룹 브랜드평판 분석 2개월 연속 1위를 차지한 워너원 브랜드는 링크 분석에서는 ‘귀엽다, 좋다, 소중하다’가 높게 분석됐다. 키워드 분석에서는 ‘강다니엘, 박지훈, 오성우’가 높게 분석됐다. 긍정비율 분석에서는 긍정비율 87.51%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 ‘꾼’ 박스오피스 독주 여전, ‘뽀로로’ 네 계단 상승 2위



영화 ‘꾼’이 18일째 박스오피스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10일 오전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9일 ‘꾼’(감독 장창원)은 16만1897명 관객을 동원하며 1위 자리를 지켰다. 누적 관객 수는 356만4234명으로, 빠른 시일 내에 400만 관객 돌파가 예상된다.

2위 자리에는 전날보다 순위가 네 계단 상승한 ‘뽀로로 극장판 공룡섬 대모험’(감독 김현호)가 올랐다. 일일 관객 수 13만7104명, 누적 관객 수 18만5300이다. ‘뽀로로 극

장관 공룡섬 대모험’은 의 계인 공룡 사냥꾼에 잡혀간 크롱과 공룡 알로 구하기 위해 공룡섬으로 떠나는 뽀로로와 친구들의 모험을 담은 애니메이션이다.

기억의 밤’은 전날보다 한 계단 하락해 3위를 기록했다. 일일 관객 수 12만2864명, 누적 관객 수 98만8148명이다. ‘기억의 밤’은 납치된 후 기억을 잃고 변해버린 형(김무열)과 그런 형의 흔적을 쫓다 자신의 기억조차 의심하게 되는 동생(강하늘)의 잊갈린 기억 속 살인사건의 진실을 담은 미스터리 추적 스릴러다.

‘베리와 마녀의 꽃’(감독 요네 바이시 히로사키)은 11만6916명 관객을 동원하며 4위가 됐다. 누적 관객 수는 20만4452명이다. 베리와 마녀의 꽃’은 낯선 마법세계에 들어가게 된 소녀 베리가 마녀의 꽃 아간비행을 우연히 손에 넣게 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5위는 전날 대비 한 계단 하락한 ‘오리엔트 특급 살인’(감독 케네스 브래너)이 차지했다. 일일 관객 수 5만8450명, 누적 관객 수 72만3088명이다. 해당 작품은 세계적 명탐정 에르콜 포아로(케네스 브래너)가 사건 의뢰를 받고 이스탄불에서 런던으로 향하는 초호화 열차인 오리엔트 특급열차에 탑승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영화다. 소설가 아가사 크리스티의 고전 추리극을 영화화했다.

6위에 오른 ‘어쌔신:더 비기닝’(감독 마이클 쿠에스타) 역시 전날보다 한 계단 하락한 순위를 기록

했다. ‘어쌔신:더 비기닝’은 무차별 테러로 연인을 잃은 평범한 남자가 완벽한 살인 요원으로 다시 태어나 1급 테러리스트를 막는 미션을 그린 영화다.

‘반드시 잡는다’(감독 김홍선)는 7위를 유지했다. 일일 관객 수 1만7197명, 누적 관객 수 39만1887명이다. ‘반드시 잡는다’는 지방 소도시 이리동에서 30년 전 미제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연쇄 살인이 벌어지자 동태를 잘 아는 터줏대감 심덕수(백윤식)와 사건을 잘 아는 진지 형사 박광달(성동일)이 추격과 감으로 범인을 쫓는 미제사건 추적 스릴러 영화다.

재개봉한 ‘리리랜드’(감독 다미엔 차젤로)가 일일 관객 수 1만 3950명을 기록하며 8위에 이름을 올렸고, 누적 관객 수 35만1908명을 기록했다. 이 밖에도 1만277명 관객을 동원한 ‘러빙 빈센트’(감독 도로타 코비엘라)가 9위, 1만133명 관객을 동원한 재개봉작 ‘히프 온 리’(감독 길 정거)가 10위를 차지했다. 누적 관객 수는 각각 31만 6128명, 97만7369명이다.

### 오늘의 순세 2017년 12월 11일 월요일 (음력 10월 24일)



▶**쥐** 작은 것부터 소중히 여길 때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욕심은 가진 재산 줄이는 지름길이다. 순리대로 살아야 가정도, 사업도 탄탄대로를 달릴 수 있다. 나, 다, 흥 성씨 건강을 조심하라. 육체 피로가 큰 화를 부른다.



▶**곰** 앞날을 열어가기 위해 투자가 필요한 시기다. 남, 서쪽에서 도움 줄 자 나타나니 몸과 마음이 풍요롭구나. 애정은 빨리 달아오른 쇠가 빨리 식는 법이니 서두르지 말고 서서히 진행하라. 10, 11, 12월생 파란색을 피하라.



▶**황새**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주변에서 사람들이 떠난다. 떠난 사람 탓하지 말고 마음을 다스리며 주변을 정리하라. 금전과 명예를 얻을 수 있다. 안일한 생각은 역경을 부른다. 경거망동을 삼가라. 2, 10, 11월생 주위의 충고 귀담아들으라.



▶**토끼** 기회를 잘 활용해 계획한 일을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저만치지 말고, 필요 이상 걱정도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라. 2, 8, 9월생 북, 남쪽 사람과 협력을 이룰 때 큰 성과를 얻는다.



▶**호랑이** 감정을 억제하고 조용함 속에서 실수를 행하라. 급한 마음을 버리고 사색할 때 새로운 지혜가 큰 힘이 돼 이득이 생길 운이다. 나, 바, 오 성씨 금전 문제는 친구나 친척에게 도움을 청하면 해결할 수 있다.



▶**뱀** 용기 있는 자만 성취할 수 있는 것처럼 하던 일이 지연된다. 방향하지 말고 혼자 처리하면 훗날 두 배 이득이 생길 듯. 1, 4, 9월생 자만은 금물이며 주위의 충고를 귀담아들으라. 서비사업 종사자는 길일.



▶**말** 아무리 할 일이 많고 짜증스러워도 참고 인내할 때 승리는 기쁨을 맛볼 수 있다. 땅 흘린 만큼의 대가는 반드시 얻는 법. 오늘은 일석이조의 날이 될 듯. 나, 오, 흥 성씨 사업 구상도 좋으나 한 번쯤은 가정을 돌아보며 시간을 가져라.



▶**돼지** 일을 새로 시작하면 초반에는 고전하나 귀인의 도움으로 서서히 풀린다. 한꺼번에 너무 크게 욕심부리지 말고 성실히 노력하면 대성할 수다. 나, 바, 흥 성씨는 특히 그래야 한다.



▶**원숭이** 열심 하려는 자제로 주위에서 인정도 받고, 금전적 도움도 얻는다. 하지만 애정 문제는 사소한 일에 불만을 품게 될 듯하다. 3, 5, 9월생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수양에 힘쓰라.



▶**닭** 이성 문제로 골치가 아프거나 동업자 간 불화가 예상되니 유대 관계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할 때다. 특히 용, 개, 양 띠를 가까이하지 말라. 화근이 따른다. 때가 되면 만큼 처신에 신경 쓰고 책임에 임하라.



▶**사슴** 계획이나 사업 전망 모두 밝으나 능력이 허락하는 한 힘껏 밀고 나아가라. 정신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은 많지만, 금전 문제로 고심에 빠진다. 그러나 해결될 기미도 보인다. 1, 2, 3월생 검은색 피하고 파란색으로 단장하라.



▶**돼지** 자신이 할 일을 성실히 하면서 내일을 기할 때 침체에서 벗어나 새로운 진로가 열린다. 경거망동만 조심한다면 남, 동쪽에서 돕는 자가 나타난다. 애정은 남자가 애대울 수다. 나, 다, 흥 성씨를 조심하라.